

史上名人의 二十歲；

栗谷先生의 退佛還儒[下]

崔益翰

太學多士의 環視中에서 新榜進士가 謁聖拒絶이란 特種의 侮辱을 當했으니 年少氣銳한 先生의 그 時心事는 어떠했을까. 그러나 先生은 神色이 조금도 달음이 없었다 한다. 그리다가 沈通源이 그의 아들 □을 보내 □旋한 結果비로소 謁□을 行했다 한다.

이뿐 아니라 後年 東西黨□가 일어나매 先生은 □停을 힘껏 일삼었고 또 宣祖의 信任이 두터웠으므로 이를 미워한 黨敵은 先生의 一時入禪을 攻撃의 絶好한 材料로 使用하였다. 大司諫宋□□의 疏中에 李珣는 본대한 縉□(=중놈)으로서 아버이를 버리고 人倫에 得罪했다 하였으니, 儒論의 風氣가 너머나 偏狹刻薄했거니와 當時排佛의 程度를 또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先生은 二十三歲에 退溪先生을 陶山에 가서 뵈오매 退溪는 그의 人品과 詩를 크게 稱□하고 그 후 편지로 程, 張, 朱諸賢도 처음엔 老佛에 出入한 前例를 들어 天下의 大智大勇이 아니면 能히 洪流를 벗고 眞源에 돌아올 수 없다고 까지 하여 先生의 退佛還儒를 크게 激勵하였다. 그리고 그 後先生의 『辭 弘文館校理疏』는 早年 禪門에 從事한 事情을 告白하고 引□辭職하니 宣祖는 下答해가로대 自古 豪傑之士도 佛에 빠진 배움을免치 못했거던 前日耽禪의 小失로서 어찌 論□의 重任을 가벼히 갈 것이냐 하였다. 이는 先□로서 또는 君上으로서 先生 儒學의 作成에 있어서 重大한 動力이 되었던 것이며, 同時에 黨□政爭에 골몰한 時□의 論法과는 同日而□할 수 없는 것이었다.

分袂東西問幾年，
欲陳心事已茫然。
前身正是金時習，
今世仍爲□浪仙。
山鳥一聲春雨後，

水村千里夕陽□.

相逢相別渾無賴,

回首浮雲點碧天.

『國朝詩刪』에 依하면 이 詩는 先生의 『初出山 贈江陵沈○○』詩인즉 二十歲의 春에 金剛山을 나와 江陵에 暫住하던 때의 所作인듯하다. 先生의 退佛後 첫 소리인 듯하다.

그러나 이 詩가 佳作임에 不拘하고 本集에 실지 안흔 것은 아마 俗儒의 見地로서 第三四句를 忌諱한까닭이 잇을 것이다. 金時習은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三角山에서 讀書하다가 端宗의 失位함을 듣고 그만 大哭하고 發狂하여 削髮爲僧하였다. 또 □浪仙은 唐의 詩人□島의 字인데 그는 침에 浮屠 卽僧侶가 되어 일홈을 無本이라 하고 洛陽에 오니 때마침 洛陽令은 禁令으로 僧을 나가게 못하는지라, □는 詩를 지어 스스로 실퍼하더니 韓退之가 보고 불상히 녀겨 중질을 두고 進士에 應舉케하였다. 그러면 前身正是金時習이란 卽 先生의 自儒入佛을 일음이오. 今世仍爲□浪仙이란 卽 先生의 自佛還儒를 意味한 것이다. 그러나 詩趣을 보아서는 人生의 執着性を 否認하고 悟道の 眞境을 表現하여 禪□의 餘味가 오히려 濃厚하다 할 것이다.

대관절 先生이 禪佛을 버린 哲學的 □緣은 어떠했던가.

先生의 自言에 依하면 先生은 寢食을 잊어가면서 靜坐□思한 結果하로는 忽然히 생각나되 佛氏가 그의 學徒에게 增減想을 짓지 마라고 경계한 것이 무슨 뜻인가 하여 그 所以然을 研究해본즉 대개 그 學은 달은 奇妙가 없고 다만 이 마음의 走作하는 길을 截斷하고 精神을 凝聚하여써 □□虛明의 지경에 이르게 하므로 話頭를 假設하여 이것을 依據로 功夫를한다. 그러나 이런 意圖의 秘密을 初學者가 먼저 알면 반드시 □精치 안하여 마침내 所得이 없으므로 또한 알림을 禁하여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 하였다. 先生은 禪道の 內秘를 이러케 더듬어서 그 學이 邪인것을 斷定하고 다시 儒家聖賢의 書籍을 갖고 參照研究한 다음에 크게 깨닫은 배잇어 드디어 佛門을 떠났었다 한다.

要컨대 先生은 禪佛의 枯寂한 世界觀을 버리고 儒敎의 行動의 敎理를 取하였으니 後年內聖外王의 道를 實行한 先生의 哲學的 根據는 決코 偶然한것이 아니었다.